

금호타이어 노조 파업 “가결”

쟁의행위 찬반투표 78% 찬성 ... 워크아웃에 악영향 우려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3월17일 광주와 곡성, 평택공장 등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재직 조합원의 78.1%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3424명 가운데 3191명이 참여해 찬성 2674명(78.1%), 무효 등을 포함한 반대 514명(16.1%)을 기록했다.

노조는 2010년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계속 거부하자 3월11일 쟁의발생을 통보한데 이어 14일에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고 17일 파업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노조의 파업 돌입 여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예비조정 절차와 24일로 예정된 본조정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노조는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 돌입 여부 등 앞으로의 투쟁 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노조는 그동안 교섭 요구안으로 ▲퇴직금 보전방안 ▲소음성 난청 판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식사교대 수당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호봉 제조정(임금체계 조정) ▲타임오프 논의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재교섭 등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3/18>